悲運의 正樂傳習所

有志가 維持會를 組織

장래는 재단법인 조직계획

獨立團과 連絡햇다고

데포취됴중인 강병주외

사건의내용은 절대비밀

某重大事件擴大?

종로서에서 취됴중이든 모범인

검사국으로 넘기는 동시확대

解放運動者

단숨에 열다섯 사람을

問題化하는

절도범도주사건

因人과 看守가 共謀

뇌물을밧고 탈옥을 도아주어

三人이 共謀

서울少年도 集會禁止

소위 불온하다는 이유로

擲柶會도 解散

雙方이서로强硬

문데의 세조건은 역시불응

가능의 사장은 간섭도 무효!

問題가 分岐될 此一夜

日本信越線 運轉中止

이일큰눈으로

列車延着

일본부산대설

(부산뎐보)

飢饉救濟演劇

함남문천에서

扶安公普校 學父兄의 奮起

확장개량운동

一、校舍新築의件

校舍는 大正十四年 三月以內(大正十三年度內)에 新築期成

二、女子學年延長의件

女子修業年限은現在四年制를六年制로延長하기로함

三、學級增加의件

學級은現在七學級(男女竝)을十學級으로增加하기로함

四、敎員增員의件

一、女敎員은現在日人女敎員을敎育上으로나또는經濟上關係로나朝鮮女敎員을要求하기로함

二、現在男敎員七人女敎員一人을男敎員九人女敎員二人敎諭許一人合十二人으로增員함을要求하기로함

五、授業料의件

一、授業料는每月現在八十錢을五十錢으로減縮을要求하기로함

二、授業料의徵收는現在敎員이生徒에게直接催促하는方法을廢함事

◇交涉委員

辛錬鎬、金德均、李宗鎬、辛泳暾、辛錫圭

其他에新築寄附金의徵收에學父兄側에서後援하기爲하야若干人의委員을選定함

運命의神? 社會의罪?

살길을차저서 間島로彷徨

병우김고먹을것은업스니 가련한모자의살길은어데

◇…살설고 물다른 이역풍토에서 배곱하울고 치워서우는그들에게는 병드러 누엇스나약인들잇슬리가업다 그들의 의지하고잇는집은 차라리 집이라는것보다 한데이다 문은다씨저젓고 집웅은 바람에 날리어오직석가래만 앙상하게 남어잇는두간초옥이다

◇…이가운데 감추어 잇는인생의 비극은얼마나 엉키어잇슬것인가! 또병들어 누은그는엇지하다가 이와가튼 운명을애소하게되얏는가 이제그가뎡의 눈물과한숨에 석긴애화(哀話)를소개하고저한다 그는나히 삼십사오세가량 되여보이는 젊은부인인데 그는지극히 초최하야얼골은 여위대로여위엇스며몸은파리하야젓다

◇…그는긔자의 뭇는말에 이러케대답한다 내가 본래살든곳은 단천(端川)읍이엇슴니다 그때에는집의가장도 재봉회사 사무원으로잇는관계로 약간의 수입도 잇섯스며 또는나도회사 삭일을하야 그럭저럭 지나다가 다시 사오년동안은 함흥(咸興)에나가 살게되엿슴니다 그러나 그때부터는 수입은점점감하여지고 식구는 점점느러감으로 아무리 애써살려고하야도 살수업슴으로 차라리간도에나가면 엇더할가하는 생각으로 우는아이를등에업고 여기까지오기는 재작년이올시다 그러나가지고온돈업고아모데와서엇지할도리가잇슬리가 잇슴닛가그저이집저집으로도라다니면서 식은밥술이나 어더먹다가 마츰 친정족하되는 김빈유(金賓攸)이가 세린하(細鱗河)에서 농사도하고 또는중국말도잘함으로 그리궁하게 살지안는다는 말을듯고혹은그리나가면 엇더할가하야그해팔월에 그리로 갓스나 그도 여의하지못하야 드러간지이틀도 못되야 …하야또다시 이곳으로 오게되엿슴니다 모진목숨이 죽지는 못하야 다시오기는 왓섯스나 빌도리가업서 삭바누질도하고고기가튼것도손으로도라다니면서 팔아서 그날그날의생활을하여 오다가 나의운명이그뿐이면지 설상가상으로 병드러눕게되고 주인까지 이세상을……하고는 그만말을끈더니 그의눈에서는 구슬가튼 눈물이 비오듯떠러진다

◇…그는 그리하야 다키운큰자식을 데사구에서는 박(朴)모에게 양자보내고 아홉살먹은아들이 찬밥덩이를 버러오면거긔에 멧식구의 목숨을 부쳐살다가 게다가 병까지집혓스니 그의가련한운명은 장차엇지 될것인가 (간도)

幽靈會社로 大詐欺

범인매원은 대판서데포

대판서구 강호굴(大阪西區江戶堀)오뎡목에서 광산업을하는매원문치랑(梅原文治郞)은 이일 대판구재판소에서 일환검사(一丸檢事)의 취됴를밧고 사긔죄로 강제처분을바다 그날밤에북구형무지소에 수용되얏다는데 매원은 오륙년전에 구류미(久留米)라는곳에서 여러사람으로더부러 공모하고 구주(九州)에잇는 삼정탄광(三井炭鑛) 부근에 이십오억돈(億噸)의석탄광이잇다하고 그석탄을 파서 팔기위하야 삼천만원 자본금의삼정탄광 주식회사를 창립한후얼마후에 칠백오십 만원으로자본을주리엇스나 그것이 탄로되야 사는 속이령뷔인것이 최근에 그회사는 해산되고복강디방 재판소의 촉탁에의하야 이와가티검거취됴 한것이라 더라 (대판뎐보)

少年斫傷

일인강구의 우악한행동

삼일하오일곱시경에시내당주동(唐珠洞)이십팔번디에사는 리학(李學)(一六)이가 수레를끌고 효자동(孝子洞)부근으로가든중 그동리일백구십칠번디 미장이강구무차(江口武次)라는자가자긔의아들과 말다툼을한다고 골을내어서 마츰내 장작패는칼로 리학의 오른편팔을 찍어독괴로 리학이는팔에 삼주일동안이나 치료를할중상을바다 목하경성병원에서 치료중인데 리학의부친은 즉시이사실을드러 종로서에 고소를 데긔하얏다더라

『風紀紊亂』의 五作

동경에열리는신춘화회

점점날이 따뜻하여 감을따라봄(春)의미술(美術)「씨즌」이되엿슴으로 각디 미술관에서는 새로운품활신 열게되는데 동경상야죽대진렬장(上野竹臺陳列場)에서는 지난일일에 권부새작품을진렬하고 문을열게되여 데일착으로 경시텽(警視廳)으로부터부견(臨見)보안과장과교(橋)검열계장 외에강구(江口)상야서장이 현장에와서 림검케되엿는데 출품가운데 라데화(裸體畫)다섯뎜은 풍긔문란(風紀紊亂)의위험이 잇다고하야 진렬을 금지하엿다는바 그화가와 작품의월홍은다음과갓다 더라

石原長光氏『에지유-도』

小寺健吉氏『習作』

太田三郞氏『裸婦의 구로쓰기』

小野田元興氏『간봄』

淺井眞氏『裸體習作』

堤防下에 屍體

긔한을못견듸어죽은듯

지난삼십일일 오후 다섯시경에 경긔도수원군 성호면오산리(京畿道水原郡城湖面烏山里)김익동(金益東)의집농편약이십간되는데방(堤防)미테서시톄하나를동리사람이발견하엿는데이사실을듯고 오산주재소에서죽시소원이출장검시한결과주소성명은알수업스며년령은오십세가량되는조선인남자로상투를짯스며 베목으로 상하의복을입엇는데 병이잇는중 긔한에못견듸여 그와가티 죽은듯하다하며 시톄는 곳청호면소에인도하야 가매장을 하얏다더라(오산)

規定잘직히는 典當業者

경찰도책망하는 다옥뎡의문영승

삼일오후 팔시경에 시내본뎡경찰서에 는다옥뎡(茶屋町)일백오십일번디 에서뎐당포(典當鋪)영업하는 문영승(文永昇)과 어성뎡(御成町)리순뎡(李順貞)두명이 달려와서 네가오르니내가오르니하며 무슨정당한처결을요구하엿다는데 그내용을 드른즉권긔리 뎡숙은 지난구월사일에 문영승의뎐당포에잡혓든금반지한개를차지려간즉 지난일월 사일이기측상긔한날이라하야 팔엇다함으로 리순뎡은 긔한후한달동안은보아주는것과 …

뎐당업은 물건을팔어리익을먹는것이 아니라 리자를 밧는것이 목뎍이니 아모리규측이 잇드래도 그와가티하는것은 심히 불가하다고 설유하야 보냇다더라

警察壓迫

민중운동자의분개

방중까지호별방문

남도디방에서 조직된 민중운동자동맹(民衆運動者同盟)에서이월월례회를리리(裡里)에서열기로한바 당국에서 미리 조건도업시그거본부의 명령이라고 금지한데대하야 회원들은 좌우간리리에모혀서 다시교섭하자고하엿는데 회일인이월팔일 오전한시경에 전주경찰서에서는 형사를 보내어각회원의집으로다니면서 자는사람을 억지로깨어서 리리에서 월례회가 금지를당하엿스니 회에참석할 필요가업스니가지를 말라고가장 친절한듯이권하고도라다녓다더라(전주)

後悔한다는 甘粕

명년에는가출옥

무정부주의자(無政府主義者)대삼영부처(大杉榮夫妻)와밋그의생질 귤종일(橘宗一)을 살해한 감박정언(甘粕正彦)은 섭정궁성혼(攝政宮成婚)때에 은뎐으로 삼년반의 감형(減刑)이되여 천엽형무소(千葉刑務所)의특별감방인 데십칠호에 옴겨잇스면 …을 살해한데대하여는 실로가슴이 압흐게후회를하노라고 말하엿다는데 옥중에잇는감박이 이러케 회개하는줄은모르고 밧게잇는 무정부주의자의일파는 복수코저 옥중의감박을노리여 오겟다는 풍설이잇슴으로 천엽형무소에서는 지난이십오일부터 안과 밧을 비상히 경계 한다는바 그런줄모르는 감박은여전히 삼노의일과(日課)내기에분주하고 잇다는데 오는오월십일에는 또특사감형이잇슬모양임으로명년봄안으로는반드시가출옥(假出獄)이되여서라도 출옥케될듯하다더라(동경뎐보)

大審院長이 殺人

사실은자동차가죽인것

지난삼십일일 오전열한시에 동경디방재판소정문에서 횡뎐대심원장(橫田大審院長)의자동차가 재등모(齋藤某)(六六)라하는 로인을치어죽이엇는데 재등은 로인으로 양육원(養育院)에들어가기위하야 재판소에 호적등본(戶籍謄本)을어더드러왓다가정문근처에서 그와가티 치어죽은것이라더라(동경뎐보)

神社에 侵入한

절도한명은테포

이일오후세시경에 고양군룡강면아현리(高陽郡龍江面阿峴里)북 십사번디압 길거리에서 행순하든 룡산서원이 무엇을 절머지고 지나가는 청년두명의 행색이수상함으로 저트로가서 조무러보고자하매 그중에한명은 고만도망을향으로 남은사람만 잡아가지고 본서로인치하야 취됴한결과 그자는서대문안구세군 구제소(西大門內救世軍救濟所)안에수용되여잇는 진남북(陳南北)(一九)이라는자로서 얼마전에 남산신사(南山神社)건축공장사무실에 사람이업는틈을타서 드러가 침구와 집긔등 삼십여원어치를절취하여 가지고 가던것을자백하엿는데 도망친자도 역시동구제소에 가티수용되여잇는 자로서 성명은모른다하며 년령은약이십사오세가령된다 더라

私嫌으로 毆打

료리집에서

자긔를비방햇다고

함남 함흥(咸興)신창리에 사는 조도전대학출신(早大出身)김긔곤(金基坤)이란사람은 이전부터 도놀 자긔의부요함을 자긍하 …

아비편들다가 아비를傷害致死

몽둥이로남을때리다가

빗나가며아비가마저서

평산군서봉면 범안리(平山郡西峰面泛雁里)일백사십구번디 윤긔환(尹起煥)은 지난달 십륙일 오후칠시경에 동리사는 자긔일가 윤원용(尹元鎔)에게 채무를 독촉하얏든바 윤원용의 언사가 대단히 공손하지못함으로 그엽헤 잇든윤긔환의 아들석용(石鏞)이가 분히여기여 석자가량되는 참나무몽둥이로 원용을 향하야 따리다가 몽둥이가엽흐로잘못가서 자긔아버지의 두개골을따리여 중상을 당하얏는데 수일동안 신음 하다가 결국 불귀의몸이되얏는바 해주 디방법원서흥(瑞興)지텽검사와당디공의가 현장에출장하야 시톄를검사한후 석용을인치하야 방금취됴중이라더라(남천)

一女二夫

풍긔에문란이라고

일반은비난을한다

안동현오번통구뎡목(安東縣五番通九丁目)에거주하는 림명행(林明行)(三八)이란녀자는본시 봉천군북중면북현동 장의행(張義行)(五二)과 부부가되여 살어오든중작년부터는 자긔가 단독으로안동현에와서 려관(旅館)을 하겟다고하면서 아직까지 아모직업이업시잇스면서 김뎡봉(金廷鳳)(三五)이란자와 밀접한관계를 매저오는데 혹본부되는 장가가오는때면 자긔집에온 손이라고하면서 간부되는김가와가티밤을 지난다는데 이일을아는 린근에서는 그녀자의행동이 넘우나난 …

짐군이 盜賊

모자집지고도주

시내림뎡(林町)사십번디에사는 모자상(帽子商)박제창(朴桂昌)과박계성(朴桂盛)(三二)과정광식(鄭光植)(三四)삼인은지난달이십륙일에 충청남도텬안군(天安郡)성환시장(成歡市場)에서모자를팔다가 그날오후륙시경에 물건을수습하야 가지고안성장(安城市)으로가려고집군하나를 어더가지고 물건을지우고 몬저떠나보내고 뒤를따라갓섯는데、그길로 그집군은아조종적을 숨기고말앗슴으로 소관경찰서에 수색원을 데출하엿다는데 가저간모자수는 이백오십여개나 된다는바 시가약이백여원가령이나된다더라

新興靑年號外押收

경성신흥청년동맹(新興靑年同盟)의 신흥청년호외(新興靑年號外)「칼리브크넥트」와「로자、룩셈부르크」의 순사긔렴호는 지난삼십일일에 일본동경(東京)에서발행하얏는데 그것도 조선안에서는 발매금지(發賣禁止)를당하엿다더라

豹虎二頭捕獲

근자에 전남장성군(全南長城郡)에는범이나타나서 부근인심이소요하든중 작년중에도 범다섯필을잡엇는데 지난이십륙일밤에동군북하면월성리(北下面月城里)김새만(金在萬)이가만든포수긔(捕獸器)에범한마리가 잡히엇는데 크기가중치는되는것이라고(장성)

◇集 會◇

◇光熙門禮拜堂特別傳道會 삼일부터 륙일까지 나흘동안 다음과가티전도강연회가 잇다고(삼일분은생략)

成功論 (四日) 洪秉璇

하느님을차지라 (五日) 李弼柱

神과人 (六日) 白亨基

◇三友俱樂部總會 금사일하오칠시종로청년회사교실내에서 개최한다는데 회비는오십전

市井雜事

◇高城에竊盜 강원도고성군고성면동리(江原道高城郡高城面東里)에잇는강순관(姜順寬)의집에지난일월이십구일밤에 엇던자인지 그집광의 잠을쇠를비틀어문을열고 백미(白米)열다섯말을절취하얏다는데 경찰서에서는 엄중조사중이라고(고성)

◇二囚圍窃取逃走 강원도이천군이천면(江原道伊川郡伊川面)탑리 칠번디 황병현(黃炳鉉)의집에는 개성군송도면(開城郡松都面古南里)리대현(李大賢)(一九)、풍득(馮風得)(二九)란자를고용으로 두엇섯는데 음력보름 일일에 주인의집에서 이백원을 절취하야가지고종적을감추엇다고(인천)

휘파람

▲청주 경찰서에서는 그곳주민들이 정초노리로윳노는것을、물연히 해산하엿다고、「해산」이라는 말만듯고 한번도 시행하여볼일이업든중청주의윳노리는그곳경찰서를위하야천재일우의조흔긔회이엇든가

▲본뎡경찰서에서는 절도범인한명을 놋친일로、소위상규관령의 야단을맛나서 그범인을취됴하든책임자는、책임을지게될는지도모른다고、그러나한편에서는「아즉정식으로류치한 범인도아니라」고어물어물

全朝鮮靑年、學生懸賞雄辯大會

時日 二月十三日(學生)十四日(靑年)兩日間

場所 未定

申込期日 二月七日外지

申込場所 朝鮮日報社平壤支局

演士 學校及靑年團體代表(一人限)

演題 各自隨意

時間 演士一人에二十分限

主催 平壤靑年會

後援 時代日報平南支局 東亞日報平壤支局 朝鮮日報平壤支局

連理枝(련리지) (8)

소요산인

불상한흑구자

「룰」부인 이외에는 집안에글자아는사람이 하나도 업섯는고로 부인은 다시편지를 집어들고집안식구가 모인압헤서 읽어들릴때다 부인이 읽기를마치매「밤게릿」은힘것게 소리를첫다

「당신고모님의 도움을밧어무엇해요! 하느님이 하느님이 우리부인을도아주섯습니다 하느님이버리시지는아니하엿스니 하느님이 우리부모시지요 우리들은 지금까지 잘자편케 살어오지 안엇슴니가? 무엇을 걱정하서요 그것은쓸데업는 걱정이십니다」

그러나「밤게릿」은「룰」부인이우는것을보고 그목을재긔껏꿰로업서 안으면서 소리를첫다

「부인 부인!」

그러나 남의울음을 말리기전에 자긔조차 목이메여서 말을못하고말엇다 이것을보고「빌지니」는눈물을 흘리며 모친의손과자긔가슴에 갓다대엿다「폴」은두눈에 불붙내여 주먹을불끈쥐고 방바닥을 굴으며 소리를지럿스나 그낫분뜻을한 사람이 어데잇는지는 아지도못하엿다 이소용을듯고「도밍고」와「마리」까지도쪼처왓다 그래서 온집안은

「아아 아씨……어머니……부시지마서요!」하는 호소리로 가득하게되엿다 이러한 친절한 위로가「룰」부인의원통한생각을풀어주엇다 부인은「폴」과「빌지니」를 두팔에부둥켜안코깃분생각으로 말하엿다

「이애들아 너의들이 내게는 걱정거리도 되지마는나를깃부게 하는것도 너의들이다이애불행은 먼곳에서 오지마는행복은 바로내겨테잇고나」

「폴」과「빌지니」는 그말의의미를 알어듯지는 못하엿스나부인의 진뎡하는모양을 본고로우슴을띄우면서 부인에게 매달리기시작하엿다 그래서 여러사람은또행복을 늣기게 되엿다 그는하참빌긔 조흔시절에 잠간소나비가 지나간셈이엇다 이두아이의흉폭한 성질은 점점분명하게나타낫다 엇던일요일이엇다 어머니네는 「참부릅쓰」레배당으로아침 례배를 보러가기위하야일죽이 떠나 간뒤에주인집을도망하여나온 흑구자의녀자가 집압헤잇는 파초나무 룸에나타낫다 피골이 상접하도록 파리하엿스며 의복이라고는 람루한 삼베또각을허리에둘럿슬 뿐이엇다 그녀자는 지금여러사람의 아침상을 차리고잇는「빌지니」압헤 둑업드리며 말하엿다

「자근아씨 도망하여나온 가련한인생을 불상히 보아주소서! 쉰네는벌서한달동안이나 밥냉을못하고 다죽어가면서 사냥과 산양개에게쫏겨 이산중을 몰어단엿슴니다 쉰네는흑하것해사는 부자대에잇다가 도망하여나왓슴니다 주인량반이 엇더케몸사 구시는지 이것을좀보아주십시요」

하며 그불상한녀자는 권신에반룸이업는 흉악한 협집을보엿다 그리고 다시말을이어「쉰네는몰속으로 뛰여돌랴고도 생각을하엿스나 자근아씨댁이 여긔잇서고은 백인량반이 계신이아니라 아직죽어서는 아니되겟다고 생각하엿슴니다」

「빌지니」는 깁히감동되야

「에구 불상한지고그려나인제는 맘을노코 이것이나먹게자아 이것을 먹게」하며만들어노앗던아침밥을내주엇다 흑구자는삽시간에 그것을 집어생켯다 「빌지니」는 그모양을 바라보고잇다가

「가엽서라 내가가서 자네댁주인에게 용서하여주시도록 말을하여봄세 주인도 자네모양을보면 불상히녁이겟지 자네를주인에 달이고가도 상관업겟나?」

「거룩하십니다! 어듸를가시던지 딸어가겟슴니다」녀자는이나가러말하엿다